

가정관리학의 방향과 교과과정 개발 연구: 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ientation and Curriculum of Home Management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徐善姬
조 교수 高寧禧
전임강사 玉耕喜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

Associate professor : Sun-Hee Suh

Assistant professor : Younghee Ko

Instructor : Kyunghee Ok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 론 |
| II. 가정관리학의 방향 | 참고문헌 |
| III. 가정관리학과의 교과목 구성 | |

〈Abstract〉

This study aims both to find the desirable orientation of the home management which have been often discussed in the academy of the home management since 1970's and to present a curriculum as a practical way of solving the problem of orientation.

We conclude that the problems of the orientation have due partly to unprofessionalized mixture of sub-areas in the home management and partly to narrowed specialization in each sub-area. We suggest that the problems can be solved when 'family lives' is the main object of the home management and when the home management is approached on the viewpoint of 'integration' rather than 'specialization'.

The curriculum based on the analysis is consisted of 4 spheres: 1) basic subjects of family lives 2) basic concepts and theories 3) subjects for Korean family lives

4) subjects for family counseling and policy.

I. 문제의 제기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정학 및 가정관리학¹⁾계에서는 그간 가정관리학의 연구경향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탐구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²⁾ 가정관리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연구의 초기에 속하는 유희경 외(1975)는 한국의 가정학은 교육의 철학 결핍, 사회변동에서의 둔감, 교육에 대한 평가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문수재 외(1982)와 이은영(1983)은 가정학 교육이 직업프로그램의 개발에 소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숙재(1985)와 이기열(1987, 1989)은 종래의 가정학 연구들이 해체적이며 각론적이어서 통합된 시각 제공에 실패하고 있음을, 그리고 강혜원(1980)이나 윤복자 외(1983)는 가정학의 연구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가정학 또는 가정관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연구대상과 방법론 그리고 전공자의 취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제안되고 있다. 가정학의 정의와 본질에 대한 재검토(이기열, 1987, 1989; 문숙재, 1985)에서부터 방법론의 보완(김재은, 1984; 홍두승, 1984) 또는 교과과정의 수정(김숙희 외, 1982; 유영주 외, 1992; 이기영외, 1993) 또는 학과명의 변경(유희경 외, 1975; 이연숙 외 1994)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정관리학의 문제와 해결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

은 연구들에서 분명한 것은 가정관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생존해나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 제기와 해결에 대한 시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해결책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가정관리학 전반의 학문적 위기감으로까지도 연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개혁안과 각 대학에서 일고 있는 대학 개혁의 움직임들은 모든 학과를 완전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함으로써 이에 대한 가정관리학 계열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정관리학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가정관리학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여러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묶어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교과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반부는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는 작업이, 후반부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기에서 쓰이는 가정관리학이라는 용어는 가족, 아동, 소비자, 주거 그리고 협의의 가정관리 분야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의 가정관리학은 역사적으로 가정학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가정학에 대한 명칭이나 가정학연구에 대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선행연구 고찰이 이루어졌다.

2) 유희경 외(1975), 최이순(1979), 문수재(1980), 강혜원(1980), 김숙희(1982), 문수재 외(1982), 이은영(1983), 이은혜 외(1983), 윤복자 외(1983), 문숙재(1985), 이기열 (1987,1989), 유영주 외(1992), 이기영 외(1993), 임정민(1990), 대한가정학회지(1994), 이연숙(1994) 등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II. 가정관리학의 방향

1. 가정관리학의 전문성과 정체성

이미 여러 논문에서 지적된 바와같이(유희경 외, 1975; 서정희 외, 1993; 66-70) 한국에서의 가정학은 여성에게 「살림」, 보다 자세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가정관리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양과목의 성격으로 출발했다. 가정이 원래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이 자라는 복합적인 장소이기때문에 가정의 관리법을 연구하는 가정학도 이러한 복합성을 반영하여 의, 식, 주, 그리고 아동의 영역을 조금씩 그러나 다양하게 다루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근대화는 가정학이 지금까지의 교양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했다. 이같은 방향 전환은 연세대학의 가정 대학에서 의, 식, 주, 아동의 영역별 전문화에서 처음 보여졌듯이 지금까지의 백과사전식의 경향에서 벗어나 영역별 전문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이래의 사회적 상황은 가정관리학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동시에 그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구성원의 거의 전부가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관리학에서도 전공자의 졸업후 직업진출에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우기 9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학 경영의 자율화와 개방화로 대학과 학과가 경쟁체계에 돌입하였고 이같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중의 하나가 직업전선에서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느냐가 되어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직업진출 문제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정관리학이 생존하는 방법은 전문화에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왔고, 그것은 선두주자 연세대학에서처럼 가정대학을 만들고 가정학 내에서의 영역별 전문화, 즉 분과(分科)의 형태를 의미했다. 분과는 가정학의 전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취업전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확산되어가고 있다.

분과의 경향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식생활과 의생활의 분과이며 이 두 분야의 분과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것 같다.) 식생활과 의생활이 떨어져나감으로 아동, 주생활, 소비자, 가정경영, 가족 등의 분야가 남게되었고 이러한 영역들은 많은 학교에서 「가정관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과(科)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가정관리학에서도 한 영역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분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나 또 실제로 분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도 있다. 아동이나 주거의 분과가 그 대표적 예이고 최근에는 소비자 분야의 분과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영역만으로 분과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두 분야가 연합하여 하나의 과(科) 안에서 전공 옵션제로 나아가기도 한다. 어떤 식으로 분과해가든 이같은 분과 현상은 전문화 초기의 연세대학교에서의 의생활과, 식생활과, 주생활과, 아동학과와 분과와 맥을 같이하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정학이 학문적 발전을 꾀하는 방법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가정관리학의 영역별 전문화라고 보는 면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분과가 갖는 두드러진 장점은 한 영역을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럼으로 인해 취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관리학의 여러 분야 중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을 때의 주거학은 공존하는 다른 영역과의 비중때문에 주거의 여러 부분을 깊이있게 연구할 수가 없었던데에 비해, 따로 독립되어 나갔을 경우에는 주생활만이 연구의 대상이됨으로 심도있는 학습이 가능하게됨은 당연하다하겠다. 그래서 전에 배울수 없었던 가구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도 배울수 있게 되었고 이에따라 주거학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취업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소비자학이나 아동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분과함으로 자신의 전공 분

3) 유영주 외, 1992; 이기영 외, 1993 등의 연구를 참조할 것.

야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과(科)의 특성이 선명하여지고 산업사회의 요구에도 잘 적용하게되어 취업이 용이해질 수있음은 분과의 효용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분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염려되는 문제점은 이같은 영역별 전문화가 가정학 내지는 가정관리학의 공중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기열 1987,1989). 독립 학문으로 분과를 했을 경우 분과 학문을 심도있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루어야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정학의 성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가정관리학에 속해있는 아동학이 분과해 나갈 경우, 전문화를 위하여 아동의 심리·발달·교육 전반을 다루게되며 이는 인접과학인 교육학이나 심리학과 가까워짐으로써 가정학적인 특성을 강하게 보인다고 하기가 어렵게된다. 이것은 소비자학이나 주거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분과될 경우 가정관리학적이기보다는 전자의 경우는 경영학적, 후자의 경우는 실내디자인이나 건축학적인 특성을 많이 내포하게 된다. 이은혜와 강혜원이 지적하고 있는대로(1983:3) “이같은 경향은 가정학내 전문분야간의 관계보다 타분야하고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칫하면 가정학 분야의 해체를 불러 올지도 모른다.” 이처럼 가정관리학의 발전을 위해 시도된 전문화는 한편으로는 전문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관리학의 해체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가정관리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게된 것이다.⁴⁾

분과가 갖는 문제성은 또 있다. 분과는 종래에가서는 독립해나간 개별 영역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영역들이 독립해나가 자기 영역의 전문화를 피할수록 독자성 내지는 정체성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각 영역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영역을 심도있게 파헤칠 수 밖

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인접학문과의 차별성과 경계가 모호해진다. 최근에 각 대학에서 제시된 계열화 방향은 영역별 전문화를 심화시켜 자칫하면 가정관리학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무엇이 소비자학을 소비를 전공으로하는 경영학의 일 분야와 차별지워줄 수 있는가? 아동학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전공으로하는 교육학의 일 분야와 어떻게 차별지워줄 수 있는가? 인접학문과의 비교에서 독자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접학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게된다. 또한 가정관리학에서 성공적으로 분과해나갔다 하더라도 분과후에 인접학문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하는 문제가 남게된다. 소비자학이 장기존속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소비문제를 연구하는 경영학 분야와의 경쟁에서 이겨내야한다. 학문의 대상을 상대로 인접학문과의 독자성확보의 문제건 아니면 인접학문과의 경쟁력 확보의 문제건간에 이 문제에서 독립해 나간 가정관리학 계열의 학문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은 비록 독립해나갔다 하더라도 가정학 계열의 학문이 계속하여 ‘가정학적’인 색채를 유지하는 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정학적인 색채는 같은 대상을 연구해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함으로 다른 각도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독자성과 경쟁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학이 소비문제를 연구해도 경영학에서의 소비연구와는 다른 점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 소비자학의 존립기반이 확고해지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소비를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넓은 지식위에서 분석하는 식의 ‘가정학적’인 접근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동일한 논리가 아동학이나 주거학이 분과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가정학적인 색채는 영역별 전문화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학적 색채란 가정생활의 맥락에서 여러 관계되는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이라할 수 있는

4)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상황과 심한 경쟁하에서 어떤 학문이나 학과의 명멸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게 볼때 과거에 존재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학이 계속 존재해야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가정관리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며 현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있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뒷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데, 이것은 가정생활이 총체적으로 연구될 때 가능한 것으로, 분과해나갔을 경우 가정생활은 단편적으로 접근될 수 있거나 혹은 빠져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분과의 경우에도 가정학 계열에 있는 학문의 발전은 가정학의 전통을 벗어나고 다른 형태로 탈바꿈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어받아 포괄적이며 현실성있는 가정학적 색채를 살려가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분과가 전문성과 취업에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의 정체성과 독자성 확보에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통합 논의는 관심을 받을 만하다. 편의상 이 논문에서는 통합이라 호칭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통합이라 함은, 분과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정관리학을 계속 분과시켜나가기보다는 몇개의 영역을 잘 묶어서 통합해내는 방향으로 가정관리학의 진로를 잡고있는 입장을 말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가 유영주의의 연구(1992)이다. 이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가정관리학의 고유영역이라고 생각되어온 몇개의 영역들을 분과시키지 않고 가정관리학의 이름으로 묶으며 동시에 각 분야를 전문성 있게 다룸으로 가정관리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은 아동과 주거는 분과시키고 이 두 분야를 뺀 기존의 가정관리학의 영역들, 즉 가정관리, 가족, 소비자를 가정 관리학의 주 영역으로 삼고 이 세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기영 외의 연구(1993)도 분과를 멈추고 제 영역들을 묶어내려고한 유영주의들의 시도에 찬성했는데 다만 유영주의들과는 다르게 아동과 주거를 가정관리학의 영역으로 포함시킬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두의 주장은 제 영역이 분과하는 것보다는 묶이는 것이 가정관리학의 정체성에 도움이 되며 동시에 각 영역을 보다 깊게 다룸으로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각 영역을 묶되 단지 그것들을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는 식의 방법에 그침으로 만족스러운 통합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들 스스로가 시인하듯이 여러 영역들을 병렬시키는 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학과로서의 통합성과 분야간 연계성을 결여”(이기영 외, 1993: 229)하고 있다.

결국 80년대부터 가정관리학 분야의 중요한 논제였던 가정관리학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가정관리학의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에는 분과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통합이 더 유리함을 보았다. 동시에 통합은 애초에 분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배경원인인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도 분명해졌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통합의 방법을 탐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2. 가정관리학의 고유성: 가정생활

가정관리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학문의 고유 연구 대상의 확립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할 것인가가 분명해지고 그것이 다른 학문의 분야와 겹치지 않으면 정체성은 저절로 확보될 수 있고 동시에 그 연구대상을 심도있게 다루면 전문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관리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전통을 흠어볼 때 변하지 않고 추구해온 대상은 ‘가정생활’이다.⁵⁾ 한국에서 가정관리학이 태동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은 가정관리학의 공통적인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가정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먼저 지금까지의 연구가 가정생활을 단편적, 부분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현상

5) 이기영(1989); 장명옥(1981) 등의 연구를 참조할 것.

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가정상황에 대한 연구들은 생활의 효율화 내지는 기능성의 차원에 문제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종종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하여 왔고 따라서 문제해결이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정생활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로 된다.

가정생활을 연구해오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연구가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가정생활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되 그것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아동이면 아동만 가족이면 가족만 따로 떼어서 단편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족·아동·주거·관리·소비자들의 현상은 외견상으로는 개별적이지만 이들 각 영역은 합하여 가정생활이란 것을 이루고 있기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서로가 복합적으로 연결,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각 영역은 한 영역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그 모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관련된 제 영역을 알아내어 그것들을 연결시켰을 때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는 한국 문화의 심층에 있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개념, 가족의식, 사회에 대한 가족의 역할 등등이 관련되어 있고 이같은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그려진 가정생활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해야 현실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관리학의 여러 영역이 가정생활로 나타날 때에는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노력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생생한 모습의 가정생활을 묘사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을 연구하되 이 영역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불려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⁶⁾

종합하면, 가정생활을 연구의 주 초점으로 삼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접

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여 가정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으면 가정관리학의 전통인 가정생활을 연구대상으로하여 가정관리학이 여타의 인접학문과 차별되는 정체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중에서 식생활과 의생활의 분과는 가정학계에서 이미 기정 사실화되고 있고 필자들도 그러한 분과에 동의한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 인정되고 있는(유영주 외, 1992) 주거학이나 아동학의 분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동이나 주거의 분과가 곧 이들 영역들이 가정관리학의 연구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거는 가정생활의 물질 기반과 가정문화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 또한 가정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를 빼버리면 가정생활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정생활은 가족·아동·주거·소비자·관리등을 포함하되 각 영역들을 깊게 파고드는 것 외에 이들 영역들을 본질적,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정관리학의 목표라고 본다.

가정생활을 연구할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바로 가정생활에 내포된 시간성과 장소성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의 가정생활과 가족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차이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할 때에만 드러날 수 있고 이 차이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맞는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활이란 비록 현재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을 규정짓는 역사적 맥락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현실 생활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6) 이러한 연구방식은 중세기 이후의 유럽 가족을 연구한 Aries (1962)의 연구나 가정생활을 일상생활의 한 영역으로 보고 총체적 접근을 해내는 아날학파식의 연구, 또는 민속학적이며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참조하는 것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적합한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측면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가정생활의 고유성과 본질을 찾고 그 속에서 현재의 문제 해결능력을 고양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학문이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와 가정에 대한 이와같은 이해가 전제될 때,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기여도와 학문적 정당성이 확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시각의 확보는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직업진출과도 상통해야 한다. 전공자의 직업진출을 해결하는 것이 학문의 방향성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한에서 직업 진출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가정생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 자체도 직업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 적용가능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같은 방법은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을 가정 복지의 차원과 연결시킴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⁷⁾ 여기서 가정복지라함은 학문적 대상인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과 정책을 의미한다. 상담은 가정경제, 가족관계, 가족환경 등의 가정생활에서의 문제를 진단해내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며, 정책은 사회적 해결방안으로 가정문제를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렇게 될 때 가족문제의 전문가로서 전공자의 직업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Ⅲ. 가정관리학과의 교과목 구성

이상과 같은 토론을 반영해서 교과과정을 만들게 되면 그 주요영역은 다음의 네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1) 가정생활을 본질적,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과목: 앞에서 가정관리학의 연구대상은 가정생활은 총체적,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기본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독립적이

되지 않고 융합 되어서 가정생활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2) 가정생활의 각 영역을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는데 필요한 영역별 기초원리 이해: 가정관리학이 가족, 아동, 관리, 소비자, 주거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 분야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별 전공지식이 필요하다.

3) 한국의 가정생활의 이해: 한국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가 한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점외에도, 우리 사회에 적합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낼 수 있게하기 때문에도 필수적이다.

4) 가정생활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진단 및 문제해결: 위의 1), 2), 3)의 영역을 공부할 때 습득되는 가정생활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위의 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교과목과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과목

기본과목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가족발달론적 이론에 입각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현상을 이해하되 종래에는 인간발달적인 측면만이 고려되었다면 여기서는 각각의 주기별 가족현상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의미의 이해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와 가족일 경우, 아동기의 인간발달적 이해에 더하여 아동기의 사회 문화적 의미까지도 살펴 보게 된다. 구체적인 교과목들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과 가족: 아동 및 아동기에 에 대한 인간 발달적 이해와 그것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아동과 가족이 갖고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7) 이와 비슷한 견해를 문숙재(1985)나 이기열(1987)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2) 청소년과 가족: 청소년기에 대한 인간발달적 이해와 그것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이 갖고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공부한다.

(3) 성인과 가족: 청소년기 이후부터 결혼, 그리고 중년기까지의 단계에 대한 인간발달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이해와 가족관계 및 변화를 이해한다.

(4) 노년과 가족: 노년기의 인간발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다룬다.

(5) 주거환경론: 가정생활이 영위되는 주거환경, 즉 물리적 환경, 지역적 환경, 도시환경들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이들 환경들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6) 가정관리론: 가정생활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배운다.

(7)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에 대한 입문 과목으로 통합적 시각에서 가정관리학의 역사와 대상에 대해서 배운다. 가정관리학의 대상을 가정생활로 보는만큼 가정관리학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의의를 이해하며 동시에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가 가정관리학의 제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운다.

2. 기초원리와 이론

가족, 아동, 관리 및 소비자, 주거와 같은 가정관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제 분야를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전공지식들이 포함된다.

(1) 가족학: 가족 연구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운다.

(2) 소비자학: 가계경제와 소비에 관한 기초이론과 개념을 습득한다.

(3) 상담심리학: 상담의 주요이론과 기법등을 다룬다.

(4) 주거학: 주택과 주생활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에 목적이 있다.

(5) 가정생활 조사방법론: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다룬다.

(6) 가정생활 통계: 가정생활 연구를 위한 기초 통

계를 습득한다.

3. 한국가정생활의 이해

여기에서는 한국의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1) 한국가족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족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2) 한국주거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 모습과 거기에 반영된 가족및 사회 가치관, 규범등을 공부한다. 생활근거지로써의 한국 주택의 특성과 변화를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3) 한국 가정생활론: 일상생활의 장으로서의 가정생활을 배운다. 가정 생활을 구성하는 관혼상제와 가사노동의 실제와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된다.

4. 가정생활의 진단 및 문제해결

이 영역에서는 가정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 분야는 상담이나 치료분야등에 역점을 두는 교육 및 상담, 제도나 법률 등에 초점을 맞추는 복지 및 정책, 그리고 현장조사와 실습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1) 현장조사와 실습:

1) 가정생활조사: 가정생활에 대해 습득한 지식·토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해·으로써 적용하는 훈련을 배운다.

2) 현장실습(Internship): 정책과 상담에서 배운·용을 현장에 나가 실습한다.

(2) 복지 및 정책:

- 1) 가족복지 및 정책: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에 관한 복지와 정책을 배운다.
- 2) 소비자정책: 소비자와 시장에 관한 정책을 검토한다.
- 3) 주택관리와 정책: 주택의 하자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배운다.
- 4) 생활법률: 가족법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법률을 배운다.

(3) 교육 및 상담:

- 1) 생활설계 상담: 가족발달주기에 따른 가족의 인적, 물질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해결책과 그에 대한 상담법을 배운다.
- 2) 아동·청소년상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상담 기법과 기술을 습득 한다.
- 3) 가족상담: 결혼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가족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배운다.
- 4) 소비자 상담: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문제해결 기술을 배운다.
- 5) 주택상담: 주택과 관련된 생활법규(주택건축법, 주택매매 및 세금 등)들을 배운다.
- 6) 지역사회와 가정생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올바른 관계와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배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70년대 이후 부터 다양하게 제기되어온 가정학 및 가정관리학 계열의 문제점들과 변화 움직임들을 고찰함으로써 가정관리학의 본질적 문제를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대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교과과정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가정관리학 방향에 대한 논의는 분과, 또는 통합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가정관리학의 정체성 상실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동시에 본 연구는

분과에 따르는 문제들을 고찰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에서 가정관리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가정관리학의 정체성이란 학문의 연구 대상인 가정생활에서 찾아내야하며 여기에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독자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정생활의 역사성과 지역성에 대한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초로 한국 가정생활을 연구하는 가정관리학 학문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영역을 (1) 기본과목, (2) 전공선택에 대한 기초원리, (3) 한국 가정생활의 이해, (4) 가정생활의 진단 및 문제해결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설명하였다.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는 기존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도 있으나 기존의 교과목들과는 성격이 다른 과목들도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통합적 시각을 위해, 또는 한국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된 교과목들로서 아직까지는 그 영역이나 내용들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생소하지만 각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학과목의 의도는 뚜렷이 전달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목들이 그대로 학과에 수용되어야 한다면 보다는 기존의 교과목을 내용과 범위를 조절하고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학과가 안고있는 통합성과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는 바이다.

본 연구가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 특성을 잃지않으면서 가정생활의 제 영역들을 통합시켜주는 관점에서 교과목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는 나름대로의 제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적 시각의 과목들을 담당할 인적 자원들이 여의치 않으며 교과목의 내용 역시 아직은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학계열이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화 사회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각 학과는 본 연구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토론을 토대로 현

실적이며 융통성있는 운영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성과 연결지어 가정관리학과 명칭개편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과의 명칭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학과의 명칭은 우선 학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교과과목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담긴 교과과목을 제시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강혜원 (1980). 가정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18(2):57-68.
- 2) 김숙희 (1982). 가정학 계열학과의 모형 교육과정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 지20(2):1-35.
- 3) 김재은 (1984). 사회과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22(4):187-192.
- 4) 대한가정학회 제4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4). 미래사회와 가정학의 발전방향. 대한가정학회.
- 5) 문수재 (1980). 인간생태학과 가정학. 대한가정학회지18(4):123-128.
- 6) 문수재, 윤복자 (1980). 가정관리 개념체계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18(4):129-137.
- 7) 문수재, 김혜경, 윤선, 윤복자, 정문자 (1982). 가정학 전공자의 취업과 전망. 대한가정학회지20(3): 85-102.
- 8) 문숙재 (1985). 복지사회에 기여하는 가정학. 대한가정학회지 23(4):176-181.
- 9) 서정희, 김선중, 김혜경, 박경옥, 박은주, 박혜원, 정민자, 홍순명 (1993). 가정 학원론. 하우.
- 10) 옥선화 (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관 리학회지8(2):205-208.
- 11) 유영주, 이기준, 문숙재 (1992). 가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연 구보고서 제91-8-104호.
- 12) 유희경, 박일화, 이경수, 이병림, 김숙희 (1975). 가정학의 검토와 미래의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13(3):1-50.
- 13) 이기열 (1987).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25(4):155-160.
- 14) 이기열 (1989). 가정학 본질의 재조명. 대한가정학회지27(4):197-22.
- 15) 이기영 (1993). 가정관리학과 교과모형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219-230.
- 16) 이연숙 (1989). 가정학의 이미지개선과 가정관리 분야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대한가정학회지 27(4):235-238.
- 17) 이연숙, 김명자, 김기옥 (1994). 가정관리학과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12(2):288-299.
- 18) 이은영 (1983). 가정학 전공자의 사회진출:무엇이 문제인가?. 대한가정학회지21(4):168-172.
- 19) 이은해, 강혜원 (1983). 가정학 교과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화를 위한 이 론적 탐구. 대한가정학회지21(3):139-160.
- 20) 임정빈 (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199-204.
- 21) 장명옥 (1981). 가정학원론. 서울:교문사.
- 22) 최이순 (1979). 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정학의 위치. 대한가정학회지 17(4):131-136.
- 23) 홍두승 (1984). 가정학 연구의 방법론적 과제. 대한가정학회지 22(4):193-194.
- 24) Aries, Philippe (1962).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Vintage Books.